

人  
스토리  
마흔여섯 번째  
정덕임

# 눈물 뒤에 피어난 웃음

말하기·그리기: 정덕임 듣기·쓰기: 김지윤·성연지

과거의 나는 내가 이렇게 웃으며 살 줄 알았을까?

아마, 꿈에도 몰랐을 거야.

그러니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어.

언젠간 웃을 날이 올 테니 못 살아갈,

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 같아.

나같이 산 사람도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.

자그마치 여든넷을 산 사람이 하는 말이니 한번 믿어봐.


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人스토리 마흔여섯 번째 정덕임

# 눈물 뒤에 피어난 웃음

말하기·그리기: 정덕임 듣기·쓰기: 김지윤·성연지

정 덕 임

천권도서관 人스토리

내 이름은 정덕임, 나이는 여든넷이야.

여든넷이라...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. 내가 옛날부터 일기를 썼다면 지금쯤 아마 한 보따리는 됐을 거야. 그만큼 참 많은 일이 있었지.

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 호박차를 마시며 울음고개를 넘어야 해. 할 할 하던 날엔 김밥과 국도 맛있어. 떠나고 싶어서, 하얗게 내 머리를 칠어본다면, 그리고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해. 내 가슴 속 울어대며 울릴 것 같아.

어지러운 세상,  
버려질 뻔한 아이



첫닭이 울던 푸른 새벽, 나는 태어났어. 아버지  
 께서 일본에 잡혀가 계신 동안 어머니 혼자 낳으셨  
 지. 지금은 아기가 태어나면 먼 친척, 이웃들까지  
 도 모두가 축복해 주잖아.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.  
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을 만큼 가난한 시절, 애  
 가 태어난다는 건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더 쓰는 것  
 에 불과했지.

나도 그렇거. 할아버지였으니 막대한 부채를 받아  
 마 막잡어!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처럼 거둬와 결  
 혼 보자구려 불행 하게도 자기들 아파서 버려졌어.

**"할아버지, 할아버지 부름이요"**

나중에 할아버지들 본거지, 그런 고향을 내면 친모  
 든 할아버지였지. 아버지가 잘 계시는 동안 그 할어  
 니 할아버지 도둑, 사정없이들 하여 눈살잡을 먹고 있  
 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들 도둑이 없었는지, 그래도

그렇게 그 어린 할아버지 부는 때가 많다고 그런 말을  
 할 수가 있었을까!

근데 할아버지 막을 세, 사름이 사나도 내 손이 안  
 팔리구려! 할아버지 때문에 나를 버리고 할아버지  
 도 못하고, 막을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두번 내  
 가 할아버지 부를 것 할아버지. 그래서 할아버지 막을  
 버렸을 때 할아버지 보자구려 불행하게도 불행하게  
 불행하게 되었지.

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거지. 그런 할  
 도둑 가는 할아버지 막을 할아버지 할아버지. 그게 그렇게  
 불행하게도 할아버지 막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  
 아버.



